

## 우리말을 사랑하려면

강주헌  
번역가

### I. 삽화 1

올해 삼일절을 며칠 앞두고 ‘겐세이’ 논란이 벌어졌다. 한 의원이 국회 모 상임 위원회에서 질의하던 중에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위원장에게 “왜 겐세이를 하느냐?”라고 항의했다. 여기에 위원장은 “위원장에게 겐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느냐. 게다가 일본어다. 삼일절을 앞두고 공개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겐세이는 ‘견제’에 해당하는 일본어이다. 그 발언의 주인공이 그렇잖아도 국정 농단과 관련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정당 소속이어서 친일로 문제가 확대될 듯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여당 소속 의원도 국회의 다른 상임 위원회에서 ‘겐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밝혀진 덕분인지 친일 문제로의 비화는 수그러들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우라카이’라는 일본어를 자연스레 사용했다. 신문에 언급된 정도만 이 정도인데 우리 삶에서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 그것도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낯선 일본어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을까?

개인적으로 나는 높으신 양반들이 외국어인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

만으로 슬픈 게 아니다. 그들이 일본어의 앞뒤로 덧붙인 말 때문에 더욱 더 슬프다. 위원장은 “삼일절을 앞두고 공개 석상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 말했다. 말꼬리를 잡아 보자. 그럼 삼일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으면 괜찮았을까? 공개 석상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삼일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으면 공개 석상이어도 괜찮았을까? 삼일절을 앞두고 있더라도 공개 석상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까? 여하튼 여당 의원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때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걸 보면, 삼일절을 앞두고 있지 않았다면 공개 석상에서 일본어를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게 분명하다. 적어도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렇다. 어쩌면 친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기자들의 세계에서도 용인되는 듯하다.

심지어 일본어가 엉뚱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지난 4월 초, ‘노컷뉴스’(뉴스는 외래어로 인정하더라도 ‘노컷’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생뉴스’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는 “초등학교는 지금 아이스에게 대신 양 기모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 기모피’와 ‘이꾸요잇’이 포르노물에서 종종 사용된다는 이유로 성폭력 언어라고 규정했고, 초등학교에서 두 단어가 쓰인다고 걱정했다. ‘기분 좋다’라는 뜻이고 ‘가자!’라는 뜻인데 포르노물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성폭력 언어로 둔갑해버렸다. 기막힌 논리이지 않은가?

대체 그들은 좋은 우리말을 두고 왜 일본어를 사용할까? ‘견제’보다 ‘겐세이’, ‘베끼다’보다 ‘우라까이’가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그들의 이력을 찾아보았다. 적어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본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은 아니었다. 모두가 자의로 일본어를 선택해 사용한 사람들이다. 물론 극소수의 단어에 불과하지만, 왜 그들은 우리말보다 일본어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까? 그들에게 공직에 몸담은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목소리로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조국에 ‘국어’는 없다!

## II. 삽화 2

지난 5월 12일 토요일 오후, 미수(米壽)를 앞둔 노모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홈 쇼핑 방송을 보고 있었다. 때마침 여성용 의상과 화장품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방송되는 시간대였다. 브라우저를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에 ‘브에프르 뉴마랑 브라우저 3종’, ‘샌드 베이지/프렌치 코코/모브 핑크’라고 쓰여 있었다. 브에프르는 상표 이름이라는 건 알겠는데 브라우저 앞에 붙은 ‘뉴마랑’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브에프르’(VEUX ETRE)는 음독도 잘못되었고, 국립국어원에서 권고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도 않다. 하기가 고유 명사이니까 일반적인 음독법과 표기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기는 하다. 그 래도 상표에 대한 설명은 그야말로 꼴불견이다. “루이 비통, 크리스찬 디올, 발렌시아가, 까사렐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이너 ‘아나이스 귀에 라’와 콜라보로 탄생한 프렌치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 브에프르, 고급스런 소재와 세련된 컬러의 조화, 맞춤형 제작하듯 꾸뛰르적인 디자이너의 터치…….” 물론 고유 명사가 쉬였지만, 우리말보다 영어가 더 많다. 색상이면 충분한 컬러에서도 샌드 베이지와 모브 핑크는 그럭저럭 상상할 수 있겠는데 프렌치 코코는 화면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다. 내가 무지한 탓일까? 그래서 구글에 검색해 보았지만 프렌치 코코가 어떤 색인지 연상할 만한 단서가 찾아지지 않았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발언은 점입가경이다. “에스닉하고 페미닌한 디자인”으로 “코튼 100퍼센트로 텔리케이트하게” 짜였다면서 ‘코튼’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프레스시 퓨어 소프트 코튼”으로 구체화한다. ‘회색이 은은히 섞인 푸른색’이라고 말하면 충분한 텐데 “그레이시한 블루 칼라”라고 말하고, ‘안에 입어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내 노모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고매하신 진행자는 “이 너로 들어가도 불편하지 않다.”라고 무척 현학적으로 불편하게 말한다.

영어로 먹고 산다는 나도 어리둥절한데 미수를 앞둔 노모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까? 하기가 내 어머니는 그들의 고객이 아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방송이지만 영어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래도 괜찮은 것일까?

외국어, 특히 영어의 범람은 홈쇼핑 방송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전 국민이 시청자인 이른바 지상파 방송국에서도 영어가 넘쳐흐른다. '시니어 토크쇼', '배틀 트립', '블랙 하우스' 등 제목에서만 영어가 쓰이는 게 아니고, 자막에도 영어가 쓰인다. 음독만이 아니라 아예 영어 철자가 쓰이기도 한다. 이제 영어를 모르면 지상파 방송마저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은 중영되었지만, '김생민의 영수증'이란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인 자막, '그웨잇!'을 보면서 10년 전에 무지막지한 비판을 받았던 '어린자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씁쓰레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 Ⅲ.

대체 외국어가 이처럼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말은 한자어에 비해 속된 말이라고! 정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생식기에 관련된 단어들로 순우리말은 격이 낮고 속된 단어이고, 한자어는 점잖고 격조 있는 단어가 된다. 한자어의 자리를 요즘 세상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겐세이' 파동이 있었을 때 한 야당 대표는 "영어, 일어, 독일어, 중국어가 혼용되는 세계화 시대인데 유독 일본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정서법만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며 그 파동을 일으킨 주역을 옹호하고 나섰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 때문인지 그 야당 대표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한 기자는 없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외

국어를 남발하는 기자들에게 적어도 언어 문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다양한 외국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맞다. 하지만 한국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때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인 외래어와, 그렇지 않은 외국어를 구분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말로 대화하는 데 아직 외래어로 인정받지 못한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와 일본어의 단어를 뒤섞는 것은 세계화 시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팬스레 멋져 보이고 싶은 허영심에 사로잡힌 ‘어리보기’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 ‘어리보기’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기를 바라지만, 있더라도 몇 명이나 될까. 뜻을 모르는 독자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바란다. 외국어로 쓰인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띄면 관련된 언어의 사전을 찾아 확인하면서 국어의 경우에는 왜 확인하지 않는가? 여하튼 ‘어리보기’의 뜻을 찾아보면 실망하며 한숨이 나올지도 모른다. 순우리말로 듣기에도 편하고 발음하기도 편한 아름다운 단어이지만 ‘낯잡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햏해서 네이키드한 몸으로 에땅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면 멋지게 들리는가? ‘햏’, ‘네이키드’, ‘에땅’ 모두 귀에 익은 단어들이다. 앞의 두 단어는 영어이고, ‘에땅’은 피자 이름으로도 사용되는 프랑스어이다. 영어에 프랑스어까지 뒤섞어 말하면 상대에게 유식한 사람처럼 보일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외국어를 남발하는 걸까? 우리말과 외국어의 관계에서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적용되는 것일까? 국립국어원이 실시한 2015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서 이 의문에 대한 약간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말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30.7퍼센트)와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30.3퍼센트)가 비슷한 정도로 많은 답을 얻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 사용이 능력 있어 보이므로”(13.9퍼센트)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10.0퍼센트)라고 응답한 사람도 만만찮게 많았다. 달리 말하면, 상대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4퍼센트, 네 사람 중 한 사람이란 뜻이다. “주위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14.7퍼센트)라는 대답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해 보자. 독립적인 모습보다는 주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살고 싶다는 뜻이다. 여하튼 상대보다 뒤떨어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이 대답도 상대에게 멋지게 보이려는 범주에 속한다면, 24퍼센트에 약 15퍼센트가 더해져 39퍼센트가 주변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셈이다.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말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갑자기 우리말이 질적으로 떨어진 언어가 되고 말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51만 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지만, 자신의 생각을 적절히 표현할 단어가 없단다! 대체 그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기에 51만 개의 어휘로도 부족하다는 것일까? 여하튼 “외래어나 외국어가 우리말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대체 머릿속에 얼마나 새롭고 엄청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일까?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라는 대답도 마뜩찮다. 어떤 개념을 표현하려고 할 때 외국어로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우리말로는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의 대답으로도 설명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말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렇다면, 앞의 대답에도 똑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말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적당한 우리말 표현이 금세 떠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자책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결국 외국어의 남발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교활한 수법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5년의 조사에서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

게 받는 인상으로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22.2퍼센트), “세련된 느낌이 든다.”(12.3퍼센트), “학식이 높아 보인다.”(9.0퍼센트)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교활한’ 수법이라 말했던 것이다. 어휘력은 인문학적 교양이다. 어딘가에서 들어본 말이 아닌가? 그렇다, 작년 초에는 ‘어휘력이 교양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번역된 적도 있었다. 이 말이 맞는다면 외국어를 남발하는 사람은 인문학적 교양이 없는 사람이다. 교양이 없는 무지함을 그럴싸한 외국어로 감추려는 사람이다. 지나친 일반화가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맞다. 하지만 우리말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과장을 해 보았다. 거듭 말하지만, 외국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세계화 시대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말 어휘력을 키워라. 그럼 겐세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우라까이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났지만 ‘시나브로’라는 부사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내 노모처럼 일제의 감시하에서도 곳곳이 우리말을 지켜주신 분들을, 한반도 밖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분들보다 나는 더욱더 존경한다.

“더버서 깨벗고 듨병에 뛰어들었다.” 무슨 뜻일까? 뜻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국어사전을 찾아보라.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